

지역 소식통

완주군, 불용농기계

지역 농업인 경매 매각

완주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던 노후 농기계(퇴비살포기 등 9종 36대)를 관내 농업인들에게 경매 매각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매각하는 농기계들은 내구연수를 초과 또는 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농기계다.

4월 5일까지 심례 농기계임대사업소 삼례읍 별산길 36에서 전시를 거친 후 6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매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한다.

경매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으로 방문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불용 농기계 경매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며 "경매에 나온 매각 농기계는 노후 농기계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꼼꼼한 상태 확인 후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경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서는 농촌지원과 농기계팀(230-3278)로 하면 된다.

/완주=이중복기자

'들썩들썩 한통속' 성료

요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평선 문화축제거리 조성 기획 운영에 따라 요촌 주민과 함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2월 정월대보름 축제를 시작으로 총 5회(골목축제 2회, 점포축제 1회, 통합축제 2회)에 걸쳐 전시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먹거리·즐거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25일에 진행된 지평선 문화축제에서는 김제 농약 품물단과 함께 '금민택시 울드기 골목형 페어리드'를 시작으로 지평선 문화축제거리의 화합을 도모하고 요촌동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산면 복지기동대

태양광 램프등 설치 봉사

김제시 백산면 복지기동대(대장 고은용)는 30일 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김제노인복지센터에서 공동 추진하는 독거노인 태양광 램프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독거노인 60여 가구에 램프등 130개를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기동대원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2인 1조로 나누어 60가구를 방문하여 은종일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램프 등을 설치 받은 한 독거 어르신은 "밤에 잠만 나올 때 눈이 침침해서 불편했는데, 램프를 설치해 주니 잘 보여서 도움이 되고 화답에도 하나 설치해 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길 고맙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자유무역지역 특장차 생산공장 문 열다

## 티엠뱅크특장기술 신규 공장 준공식

### 수출 전용 소형 견인차· 붐고 언더리프트 등 생산 유럽·중아시아 등 수출 지역 상생발전 기대

특장차 제조기업인 (주)티엠뱅크특장기술(대표 최태근)의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신규 공장 준공식이 30일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 유재열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위원장, 권건안 한국교통신공공단 특장차인증센터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티엠뱅크특장기술은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부지 1만6,501㎡에 50억원을 투자, 30여명의 고용창출을 계획으로 2021년 5월 28일 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인차의 무게를 경량화하고 기동성 향상·높은 승차감·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적재할 등 타사와 차별화된 수준 높은 기술로 수출 전용 소형 견인차, 붐고 언더리프트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태근 (주)티엠뱅크특장기술 대표는 "김제자유무역지역 공장은 유럽, 중아시아, 인도네시아 등 수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며, 소형 록카부톤 국내 1위를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기업을 만들고자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티엠뱅크특장기술이 혁신기업으로 거듭나 지역과



특장차 제조기업인 (주)티엠뱅크특장기술의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신규 공장 준공식이 30일 열렸다.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라며, "김제시는 특장차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출기업 지원시

책을 발굴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줍깅'

김제시 자원봉사센터는 30일 벽골제에서 관내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및 영아 5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실천 함께해요 줍깅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센터와 3개소의 어린이집 연합으로 실시된 이번 줍깅 활동에서는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과 함께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벽골제 내 주차장을 비롯하여 농경사 주재관 주변을 걸으며 새봄맞이 환경정화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줍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함께할 수 있는 봉사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줍깅 활동에 참여하여 환경정화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는 30일 벽골제에서 관내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및 영아 50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실천 함께해요 줍깅'을 실시했다.

## 완주군민의 날, 4년 만에 실외행사로 개최

### 5월 12일 동진생활체육공원서... 내달 3일 군민화합한마당 예심 접수

완주군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친 군민의 마음과 그동안 한자리에 지친 문화축제를 위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13개 읍·면 주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한다.

30일 완주군은 '제58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완주군청 일원 동진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5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8회를 맞이하는 완주군민의 날은 코로나 19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실외행사로 기념식, 체육행사,

군민화합한마당(노래자랑)이 진행된다.

군은 군민화합한마당 예심 접수를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해 4월 14일까지 완주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예심을 통해 약 10팀이 본선으로 진출하며 예심 장소는 완주문화에 슬화관으로 4월 27일 치러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년 만에 개최되는 완주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완주군민들의 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로 예심 현장도 흥겨운 자리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민의 날은 13개 읍·면 주민들이 격려하고 응원하며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주민 간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완주군민 주간을 운영해 기간 중 다양한 행사·공연·전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 '민선8기 완주군의 미래 함께 그려주세요'

### 내달 3일부터 '완주 미래비전 전략과제 아이디어 공모전'

완주군이 민선 8기 완주군의 미래 성장을 견인 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30일 완주군은 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2023 완주군 미래비전 전략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민선 8기 완주군의 미래 성장을 견인 할 정책 혁신 아이디어로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첨단경제 생태계 조성 3대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공모전은 완주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인 부문과 중·고등 부문을 각각 나누어 접수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중고등 부문을 신설해 주민들의 정책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혁신성·논리성·실현가능성·정책기여도·사회적 가치 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부서

검토와 실무심사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군수표창 및 포상금이 지급되며 일반인 부문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3명(각 50만 원), 장려 6명(각 30만 원)이고, 중·고등학생 부문 최우수 1명(30만 원), 우수 8명(각 10만 원), 장려 12명(상금없음)이다.

단, 심사 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 시상은 제외하며, 심사결과 등에 따라 시상 내역은 달라질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며 "채택된 우수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지난 29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5년 국가예산 신규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가 열렸다.

## 국가예산 신규 발굴상황 점검

### 김제시, 전북연구원과 신규·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채택된 민생경기 회복과 민선8기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25년 국가예산 신규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 주재로 부시장·국·단·소장과 실·과·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 중인 사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추가 발굴된 주요 사업들은 △성산공원 랜드마크 구축사업 △새마을남북 3축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사업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시스템 사업 △국도 2호선 연결교차로 등 1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는 전북도의 성

크 탱크이자 브레인인 전북연구원에서 참여해 김제시의 미래를 위한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김제시 발굴사업의 전문과 제안을 통해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시는 부처별로 내년도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북연구원의 전문과 제안받은 사업의 논리를 보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며, 정부예산 편성순기별 대응을 통해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정책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